

조선이 청에 전달한 일장(日藏) 금석(金石) 자료와 그 학술적 가치

정혜린*

[국문초록]

20세기 이전 한중일 삼국의 문화 교류는 다방면에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분야 중 하나가 금석학이다. 청대 들어 중국 문물을 정리하는 학술 사업이 진행되면서, 청의 학자들은 중국 밖으로도 눈을 돌려 조선과 일본에서 희귀 자료들을 입수하고자 했다. 청과 조선 간 고증학, 금석학 교류는 18세기 후반 이후 활발해졌으나, 일본의 경우 청일간 공식 외교가 진행되지 않아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경전 자료들의 경우 양국을 오가는 상선을 통해 어느 정도 입수할 수 있었지만, 금석학 자료는 양국 모두와 공식적 외교를 진행한 조선 문인들의 힘을 빌어 자료를 수입하게 된다. 현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청의 학자들이 조선의 문인을 통해 입수한 일본 소재 자료는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상임연구원

주제어: 금석학, 역산비, 다호비, 해동금석원, 금석색, 김정희, 섭지선
Epitaphy(金石學), Yishanbei(山碑), Tagobi(多胡碑), Kim Jeonghui(金正喜),
Joseon missions to Japan (朝鮮通信使)

첫째, 중국 고비 모본인 <역산비>(嶧山碑) 중모본(重模本)이다. 1863년 조선의 계미통신사단은 이 자료를 일본 문인으로부터 건네받았고, 19세기 중반 김정희가 옹방강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는 당시 중국에 현존하던 가장 오래된 <역산비> 모각본인 북송대 역음당본의 원본에 대한 모본으로서, <역산비> 제 모본을 둘러싼 금석학 연구, 그 시대 구분의 기준자료가 되면서 중국의 제 모본들보다 전서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둘째, 일본에서 제작된 석각자료 4종이다. <다호비>(多胡碑)(711)와 <다하성비>(多賀城碑)(724) 등은 역시 위의 통신사단이 일본으로부터 선사받고 역시 19세기 중반 조병구, 김정희가 각각 청의 유희해, 섭지선에게 건넸다. 이들 자료는 『해동금석원』, 『일본잔비쌍구본』, 『해법석원』에 수록되었다. 셋째, 일본에서 제작된 동경들이다. 19세기 중반 김정희는 이들을 옹방강, 섭지선을 위시한 몇몇 문인들에게 선사했고 『금석색』에 수록되었다. 조선 문인을 통해 전달된 일장 금석학 자료들은 청대 학술사업에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일본 금석학 자료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1. 머리말

한중일 삼국의 문화 교류는 수당시기 외교사절 혹은 유학생, 유학승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삼국의 교류는 제 사상과 경전, 미술, 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진행된 분야 중 하나가 금석학이다. 청대 들어 고증학, 금석학이 크게 성장하면서 『사고전서』 편찬 등 중국 문물을 정리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청의 학자들은 일실된 옛 전적, 금석 자료 등을 수집하기에 힘썼다. 이들은 중국 밖으로도 눈을 돌렸으며 조선과 일본에서 희귀 자료들을 입수하고자 했다. 청과 조선 간 고증학, 금석학 교류는 18세기 후반 이후 연행사들의 유관(遊觀)이 자유워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¹⁾ 김정희(金正喜, 1786-1850)는 1809년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의 석학들과 교류한 이래 중

국에서는 오래전에 일실되었으나 조선에는 존재했던 원대(元代) 수학 저서 『산학계몽』(算學啓蒙)을 청대 문인들에게 선사하고,²⁾ 여러 경전들을 선사받는가 하면, 조인영(趙寅永), 홍현주(洪顯周) 등 그의 주변 문인들 역시 청의 유희해(劉喜海), 옹방강(翁方綱), 섭지선(葉志詵) 등과 양국의 금석학 자료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청과 일본 간 문화 교류는 조선과의 교류와는 그 양상이 달랐다. 일본은 에도 막부의 성립 이후 1960년대까지 청과 국가 차원의 외교 관계를 전개하지 않았고, 통상무역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청 역시 1655년부터 여러 차례 상인과 민간의 선박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엄금했고 1683년에야 청의 상선은 일본 장기에 드나들 수 있었다. 이후 상선을 통해 엄청난 학술 문화 자료가 양국을 오고갔는데, 일본은 조선보다 17년 먼저인 1760년에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수입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청 역시 1794년에 중국에서 오래 전에 일실된 당본 경학 자료 8종 총서인 『칠경맹자고문보유』(七經孟子古文補遺)를 비롯해 일본에서 판각한 고학 관련 저술 25종 등 여러 서적들을 수입했고, 중국에서 산실된 경서 17종(種)을 모은 『일존총서』(佚存叢書)는 1801년에 부분적으로 전편과 후편 8부를 수입하기 시작하여 『일존총서』가 완간된 1811년 이후 1818년에 총서 전편을 수입할 수 있었다.³⁾ 그런데 본고의 연구 범위인 금석학의 경우 경학 자료와 달리 상인들을 통해 입수할 수 없었고, 이에 청은 양국 모두와 공식적 외교를 진행한 조선 문인들의 힘을 빌어 일본 금석학 자료를 수입하게 된다. 본고는 특히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제작된 석각 자료, 일본에서 제작된 동경(銅鏡)이 일본 문인들로부터 조선의 1764-1765년의 계미통신사과 19세기 연행

- 1) 정혜린(2013), 「이상적이 고유한 청대 문인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史林』 제45호 참조.
- 2) 曹楸堅, 『曇雲閣集』 卷六, 「題朝鮮金史歲寒圖」, “早聞秋史名, 惜哉 未一面, 疇人術既殫-著有算學啓蒙-經史尤貴弗譬我賈董流洵.”, 陳康祺 撰, 『郎潛紀聞二筆』 권 13, “算學啓蒙, 重入中國.”
- 3) 정혜린(2013), 「金正喜의 일본 古學 수용 연구」, 『한국실학연구』 26 참조.

사단을 거쳐 청에 이르는 경위를 살펴보고, 아울러 청대 학술사업에 반영된 성과와 의의도 제시할 것이다.

2. 일장(日藏) 중국 석각(石刻)자료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거쳐 청으로 전달된 금석학 자료 중에는 오랫동안 일본에 보존되어 있던 중국 고비 모본이 있다. 바로 <역산비>(嶧山碑) 중모본(重模本)이다.⁴⁾ <역산비>는 진대(秦代) 이사(李斯)가 소전체(小篆體)로 쓴 석각을 말한다. 진시황은 재위 28년(B. C. 219)에 역산(嶧山)으로 동순(東巡)하여 진나라가 봉건제를 철폐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는 것을 칭송하는 노래를 짓고 돌에 새기게 했으며, 이사가 소전으로 글씨를 썼다고 한다. 『사기』에는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28년에 “시황제가 동쪽으로 군현을 순행하다가 추성(鄒城) 소재 역산에 올라 비석을 세우고, 노나라의 여러 유생과 진나라의 덕을 기리는 송을 돌에 새기는 것을 의논하고, 봉선과 산천에 망제를 지내는 것을 의논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⁵⁾ 진나라 때 세운 석각 7종 중 <역산각석>만 그 비문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역산비> 중모본에 의하면, 비문은 ‘시황소’(始皇詔) 144자의 큰 글씨와 ‘이세소’(二世詔) 79자의 작은 글씨로 구성되어 있다. 원석은 당나라 때 기록에서부터 훼손되었다고 전하며, 송대부터는 모본 각석 그리고 몇 종의 모본만이 존재했다.

그중 한 종류의 모본이 아마도 견당사(遣唐使)나 견수사(遣隋使)를 통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1000여 년이 지난 1863년 일본에 파견된 조선의 계미통신사단은 이 자료를 일본 문인으로부터 건

4) 문헌에 따라 ‘嶧山’은 ‘繹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5) “始皇東行郡縣，上鄒嶧山立石，與魯諸儒生，議刻石頌秦德，議封禪望祭山川之事。”

네받는다. 재미통신사는 정사 조엄(趙巖), 부사 이인배(李仁培), 종사관 김상익(金相翊), 제술관으로 남옥(南玉), 서기 성대중(成大中), 원중거(元重舉), 김인겸(金仁謙)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763년 8월 한양을 출발해 9월 7일 부산항을 떠나 동경(東京)에 도착해 국서를 전달하고 이듬해 7월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일본에서 여러 일본 문인들을 만났으며 그중 몇몇은 사행당에게 약간의 금석 자료를 전달했다. 한천수(韓天壽, 1727-1795)는 일찍이 조거난파수(鳥居丹波守)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역산비> 모각본을 손수 제작해 갑신년 3월 11일에 통신사단 4-5명 각각에게 선사했으며, 같은 해 4월 9일에 <화산비> 모각본도 선사했다.⁶⁾ 이 탁본들 중 하나는 19세기 김정희도 소유했다. 청의 문인 섭지선(葉志詵)은 1834년 김정희에게 쓴 편지에서, 전에 김정희가 옹방강에게 보낸 <역산비> 중모본을 자신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언급했다. 등충린은 김정희가 일본에서 각한 『진역산비첩책』(秦嶧山碑帖冊)을 소장했으며 1935년 제출된 학위논문 『조선조(朝鮮朝)에 있어서 청조(淸朝)문화의 유입(移入)과 김완당(金阮堂)』에서는 이 각첩을 당시 최남선이 소장하고 있었다고 했다.⁷⁾ 『진역산비첩책』에 부친 김정희의 제문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송대 원우 8년에 세워진 역음당에 번모한 것이니, 오히려 정무순화본보다 백 년 뒤이고 오래된 것이 아니다.

예당학인 제.⁸⁾

김정희는 일본에서 건너 온 모본은 송대 제작된 역음당본(嶧陰堂本)과

6) 南玉, 『日觀記』 권8, 3월 11일, 같은 책 권9, 4월 9일; 元重舉, 『乘槎錄』, “韓天壽質朴少文, 而善書且善模刻, 遣五四人以嶧山碑華山碑及倭國多胡軒印本各一軸, 皆其手摹也”

7) 藤塚鄰 저,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역(2008), 『秋史 金正喜 研究』, p. 569.

8) “此爲宋元祐八年嶧陰堂翻摹, 尙遲于鄭樵淳化爲百年之後, 又非舊矣. 禮堂學人 恭題.”(藤塚鄰(2008), p. 280. 이 글은 『완당전집』에 실려 있지 않다.)

같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정무순화본(鄭撫淳化本) 즉 정문보가 순화년간 모각한 것보다 백년 뒤의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일본에 소재한 <역산비> 역음당본의 중모본은 <역산비> 연구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 의미는 중국 <역산비> 모본 제작의 역사에서 드러난다.

<역산비>는 진시황 28년에 세운 비석으로서 진대의 7개의 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비문의 내용이 『사기』에 수록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석은 이미 당 천보년간 이전에 소실되고 그 저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목각 혹은 석각의 비석이 다시 세워졌다는 기록만 전한다. 청대까지 전해지는 <역산비> 모각은 이후에 북송대 다시 건립된 두 종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위에서 김정희가 언급한 것이 그 두 종이다. 그 중 정무순화본은 순화(淳化) 4년(993년) 정문보(鄭文寶)가 남당(南唐) 서현(徐鉉)의 모본(摹本)을 장안에 중각(重刻)한 것으로 ‘장안본’이라고도 한다. 역음당본은 이후 원우(元祐) 8년(1093)에 추령(鄒令) 장문중(張文仲)이 이사(李斯)의 소전을 발견하고 이를 추현 역음당에 새겼다는 것으로 ‘추현본’(鄒縣本)이라고도 불린다. 정무순화본은 현재까지도 존재하지만 역음당본은 소실되었는데 이미 원대 지원년간에 훼손이 심해 옆에 새로 다시 세웠다고 한다.⁹⁾ 일본 소재 <역산비> 중모본은 우선 중국 최고(最古)의 <역산비> 모본 2종 중 하나인 역음당본의 중모본으로서 이하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송대 모각본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두 가지 제공했다.

김정희는 계미통신사단이 일본에서 가져온 역음당본과 동일한 본을 옹방강에게 전해주었다. 옹방강이 1816년 경 김정희에게 보낸 서찰에 보면, 일본 구각 진역산본을 잘 받았다고 하면서 <역산비>를 읊은 짧은

9) 朱承命·陳紫芝 纂, 『鄒縣志·古跡卷』, “宋元祐八年, 鄒令張文仲, 於北海王君向, 獲李斯小篆, 刻諸廳陰堂. 迨至元二十九年, 縣令宋德, 乃夏津人也, 歎是碑殘缺, 恐致泯絕, 乃命工礪石纂刻於其側.”

시를 함께 보낸다고 언급한 구절이 있다.¹⁰⁾ 그 시는 『복초재시집』 권68의 「진역산비구본」(秦嶧山碑舊本)이라고 추정되는데, 일본 소재 <역산비> 중모본의 의의를 설명할 단서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옹방강의 또 다른 글인 「발역산비」(跋嶧山碑)와 함께 일본 소재 <역산비> 모본의 중국 전래의 의미를 살펴본다.

1

- ① <진역산비>는 일본에서 각했는데
[당나라 때] 대추나무에 새긴 비본보다 앞섰다고 하네.
- ② 대추나무 각본은 누가 제작한 것인가.
두공은 처음에 고장의 꼭대기에 있다고 추측했네.
-고장 진비는 두보가 젊을 때 지은 시구에 나오는데 [두보는 당 시] 중각인지 생각하지 못했다.¹¹⁾
당나라 때 새긴 것은 나무인가 돌인가.
- ③ 그 탁본이 동유의 『광천서발』(廣川書跋)에 전한다네.
하송(夏竦)이 소장하다 동유의 『광천서발』에 전하니,
기질은 혼연하고 중후하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 ④ 두보는 비수로 고금을 구분하는데, [동시대의] <之罘>석의 모본이 훨씬 더 살졌네.....
- ⑤ 이는 원우년간 역음본이라, 서현이 이보다 또 백 년 전이라네.
허신이 『설문해자』에 진비를 기록하고, 서현은 교정하였고, ‘攸’자의 부수는 [서현의 동생 徐階가 편찬한] 『說文解字系傳』에도 마찬가지로 교정되어 있다.
[이사의] 『창힐편』 7장이 진나라때 전서로 쓰여있다 한들 어찌

10) “日本舊刻秦嶧山本有小詩奉酬。又壽藤大石研-收到，又札尾云刀二，此未見。”(藤家鄰(2008), p. 394.)

11) 杜甫, 「登兗州城樓」, “東郡趨庭日，南樓縱目初。浮雲連海岱，平野入青徐。孤嶂秦碑在，荒城魯殿餘。從來多古意，臨眺獨躊躇。” 연구에서 바라본 우뚝 솟은 산은 역산을 말한다. 옹방강은 두보는 역산에 진비 즉 <역산비> 원석이 있다고 잘못 추측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작은 차이로 우열을 다투겠는가.

‘水’의 부수는 없앨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이때는 분명 뜻에 따라 선택했을 것이네.....

⑥ 내가 하송, 동유로부터 서현과 허신으로 거슬러 올라가 공부해 보니, 두보의 시와 두기의 부가 억지는 아니었네.

-그 지방 사람이 중각했다는 것은 두기의 『술서부주』에도 보인다.....

⑦ 세상에 전하는 일곱 개의 판본과 무엇이 어깨를 나란할 것인가.

-양사기와 도목은 모두 세상에 7개의 모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 서재에 그중 셋이 있다.-

해동의 김 군이 서신을 보내왔는데 목흔과 옥저에¹²⁾ 중봉이 둥글어라

<역음당본>보다 낫고, 십지선을 위해 교정보고 있는 [송대 순희년간] 『여산진서갑수당진전보』(廬山陳氏甲秀堂秦篆譜)를 압도하는구나.¹³⁾

2

① 오른쪽 역산비 구분은 조선의 진사 김추사가 일본국에서 중각한 것을 인편에 부쳐 준 것이다. ② 자목에 새겨졌다고 전하는 것보다 이전의 판본이라고들 한다. 생각해보면 두보의 시에서 자목에 전하는 각본이 살져 본 모습을 상실했다고 한 것은, 글씨를 비교하는데 마르고 단단한 것을 귀하여 여겨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본(本)은

12) 옥저는 전서의 기본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사가 시작한 소전을 가리킨다. <태산각석>, <역산비> 등이 옥저체로 쓰였다고 하는데, 필이 비수가 없이 둥글고 윤택하고 두텁다.

13) 翁方綱, 『復初齋詩集』 권68, 「秦嶧山碑舊本」, “嶧山秦碑日本刻, 謂出棗木本前, 棗木之刻誰所作, 杜公初擬孤嶧嶺 -孤嶧秦碑在在杜早年句, 未考是重刻- 唐時所勒木耶石, 拓本開自董廣川, 夏竦之藏董之跋 氣質渾重然不然 杜以肥瘦辨今古, 之眾摹更肥甚焉 …… 此即元祐嶧陰本, 徐鉉前此又百年, 訐說秦碑徐所授, 攸旁繫傳同丹鉛, 蒼頡七章即秦篆 豈以小異徒騁妍 從水省或水不省, 爾時必有系指詮……. 我由夏董溯徐許, 杜詩竇賦非拘牽, -土人重刻, 又見竇景賦注……. 世傳七本誰差肩, -楊東里都南濠, 皆言世有七摹本, 今吾齋有其三-海東金君惠緘致, 墨暈玉筋中鋒圓, 置諸嶧陰堂本上, 已壓甲秀匡廬編. -適爲葉生校定廬山甲秀堂秦篆譜.”

다른 것에 가까우므로 자목에 새긴 것보다 이전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자목본이 살졌는지는 이미 밝혀낼 수 없다. ③ 송대 동유는 『광천서발』에서 견증한 역산비 잔각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질이 혼후하고 무게감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 어느 시기의 본인지 말하지 않았다. ④ 양사기와 도목은 모두 세상에 전하는 일곱 개의 본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단지 그중 네 본을 보았을 뿐이다. 원우 팔년의 역음당 중각본만이 이 일본 구각과 모두 일치한다. ⑤ 이[일본소장본]은 원우본의 원본으로서 당 이전의 모각본일 것이다. 협본 즉 서현·정문보가 전하는 모본과 비교하면, 이 본이 더 나은 바가 있다. 전에 내 친구 전대흔이 『설문해자』의 역산본이 ‘문’(汶)자라는데 근거해, 서현본이 오기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설문해자』는 서현이 교정보았는데 어떻게 진대에 수(水)를 따라 새긴 일을 모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현의 판본에서 ‘유’(攸)자는 이 판본[일본모본]과 동일하니, 당 이후의 중각 <역산비>의 ‘유’자는 모두 ‘攸’를 따르고 ‘水’를 따르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허신이 언급한 <역산비> 석각은 ‘攸’자를 ‘汶’이라고 새겼으니, 진대 석각의 고문이 분명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⑥ 그러므로 두보가 ‘살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었네.’라고 한 것은 반드시 글자의 살짐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데 실언을 한 것이다. 이사가 분서갱유를 한 후 지은 『창힐편』(倉頡篇) 7장 역시 사라져 전하지 않으니 무엇으로부터 규명할 것인가.¹⁴⁾

14) “右嶧山碑舊本，朝鮮進士金秋史寄贈，日本國所重刻，云相傳爲棗木傳刻以前本。按杜詩棗木傳刻肥失真，特(원본은 物)以對照書貴瘦硬言之，此本近瘦，故有相傳棗刻以前之說，實則棗木之肥，已無可考。宋董廣川所見嶧山殘刻，云氣質渾重，亦不言何時之本也。楊東裏都南濠，皆言世傳有七本，愚僅見其四耳。唯元佑八年嶧陰堂重刻本與此日本舊刻悉合，此蓋元佑本所從出，則亦是唐以前摹刻本矣。以陝本徐鄭所傳摹者校之，此尚有勝於徐鄭本處。昔吾友錢辛楣據說文，嶧山本汶字，疑徐本之誤。然說文徐所校訂，豈有不知其秦刻從水者。而徐本乃作攸，亦正與此本同，則可驗唐以後重刻嶧山碑，攸字皆從攸不從水矣。許慎所見嶧山石刻，攸字作汶，是必秦刻古文如此，則杜云肥失真者，未必盡以字肥之失言之。李斯焚書，而所作蒼頡七章，亦漸滅無傳，其孰從而核之。

<역산비>의 모본은 명대 7종이 존재했다. 옹방강이 1-⑦, 2-④에서 말한 명대 양사기(楊士奇)의 이야기는 『동리속집』(東裏續集) 권21의 「추현역산비」(鄒縣繹山碑) 발문을 의미한다. 양사기는 전에 진사효가 쓴 글에서 보니 <역산비>에는 7가지 번본이 있으니 장안본, 소흥본, 포강본, 응천부학본, 청사본, 축중본, 추현본이라고 기록했다.¹⁵⁾ 옹방강은 세 본을 소장하고 있고 4본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기타 문헌들을 통해 <역산비>의 모본의 논증을 전개한다.

<역산비>는 원석이 유실된 이래 당송대부터 모각본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되었다. 당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전언이 있다. 첫째, 두보의 시구다. 옹방강이 위 시에서 읊은 대로 두보는 「이조팔분소전가」(李潮八分小篆歌) 중 “역산비는 들에서 불탔으며, 대추나무 모본은 글씨가 살져 진실한 모습을 잃었네.”라고 했다(1-②, 1-④, 2-⑥). 둘째, 두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봉연(封演)은 『봉씨견문기』(封氏聞見記) 권8에서 북위 시기 <역산비> 원석이 불탔고, 그 당시 어느 관리가 옛 글을 새로 돌에 새겨놓았다고 했다(1-②).¹⁶⁾ 셋째, 역시 천보년간에 활동했던 두기(竇泉), 두몽(竇蒙)은 『술서부주』(述書賦注)에서 <역산비>를 다시 세웠다고 했는데, 그 세운 주체는 봉연과 달리 지방관리가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라고 했고, 또 돌이 아닌 나무에 새겼다고 했다(1-⑥).¹⁷⁾ 그래서 옹방강은 당나라 때 두보, 두기의 말대로 나무에 새긴 것인지 아니

15) “嘗見陳思孝論繹山翻本次第云，長安第一，紹興第二，浦江第鄭氏第三，應天府學第四，青社第五，蜀中第六，鄒縣第七。”(都穆 역시 『金薤琳琅』 권2, 「秦嶧山刻石」에서 거의 유사하게 언급했다.)

16) “後魏太武帝登山，使人排倒之。然而曆代摹拓，以爲楷則，邑人疲於供命，聚薪其下，因野火焚之，由是殘缺，不堪摹寫，然猶上官求請，行李登陟，人吏轉益勞弊。有縣宰取舊文勒於石碑之上，凡成數片，置之縣廨，須則拓取。自是山下之人，邑中之吏，得以休息。今人間有繹山碑，皆新刻之碑也。”

17) “李斯，上蔡人，終秦丞相。作小篆書繹山碑，後具名銜。碑既毀失，土人刻木代之，與斯石上本差稀。”

면 봉연이 언급한대로 돌에 새긴 것인지 자문한 것이다. 옹방강은 자목에 새긴 비본은 남아있지 않아 고증할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2-②, 2-⑥).

송대에도 모본 각석은 두 번 더 제작되었다. 북송 순화4년(993) 정문보(鄭文寶, 953-1013)는 자신의 스승인 서현(徐鉉, 917-992)이 소장했던 모본을 중각하여 장안의 국자감에 두었다고 비석 뒷면에 각한 제기(題記)에서 밝혔다.¹⁸⁾ 그런데 서현, 정문보의 <순화본>은 몇몇 전자(篆字)가 『설문해자』에 기록된 전자와 다르다. 이에 대해 전대훈의 경우 『잠연당금석문발미』(潛研堂金石文跋尾)에서 서현이 모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옹방강은 서현이 『설문해자』의 주석서를 폄다는 점에서 서현의 실수가 아니라 판본 자체가 『설문해자』에서 언급하는 진대 고문의 원본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1-⑤, 2-⑤). 실제 서현은 송 태종의 명을 받들어 구중정(句中正), 갈단(葛湍), 왕유공(王惟恭) 등과 함께 『설문해자』를 교정보았고, 이것이 이른바 ‘대서본’(大徐本)이다. 옹방강은 고문의 ‘문’(文) 자가 당대 이후 중각본에서는 ‘유’(攸) 자로 기록되며 이는 서현본, 일본 중각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옹방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중각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한 추현본도 ‘유’ 자로 기록했다.

일본에서 가져온 것은, 장문중이 역음당에 번각해 놓은 각석보다 나은 뿐 아니라 역음당본보다 100년이나 앞선 장안본보다도 낫다고 본다. 전서로서 옥저와 중봉, 각을 둥글게 한 서체적 특징도 뚜렷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 중각본은 중국 소재 <역산비> 제 모본 연구에 두 번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옹방강은 수·당대 일본과의 문화교섭에 대해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다.¹⁹⁾ 옹방강은 일본의 <역산비> 모본이

18) “秦相李斯書繹山碑跡，妙時古殊爲世重，故散騎常博徐公鉉，酷耽玉箸，垂五十年，時無其比。晚節獲繹山碑摸本，師其筆力，自謂得思於天人之際。”

19) 金正喜, 『阮堂全集』 권9, 『仿懷人詩體 歷敘舊聞 轉寄和舶 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

당 이전 중국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본의 증모본은 중국 소재 역음당본의 원본에 대한 모본으로 확신한 것이다.

<역산비> 모본에 대한 논의는 북송대 세 가지 설 이후 남송대 동유(董迪)의 기록에서 계속되지만, 옹방강은 신뢰하지 않는다. 동유는 『광천서발』(廣川書跋)에서 진백수(陳伯修)가 <역산명>을 보여주었는데 전에 하송(夏竦)이 얻었던 것이라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하면서, 글자가 기질이 혼후하여 삼대의 기상이 남아있다고 했다(1-②, 2-②).²⁰⁾ 옹방강은 글씨가 기운이 두텁다는 동유의 말도 고증불가능하다고 했다. 동유가 어떤 본을 대상으로 평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역산비>는 진대 일곱 석각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매우 귀중한 고대 역사자료이자 중국 서예의 가장 오래된 금석학 자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원 석각은 이미 당나라 이전에 일실되었다. 당에서 제작된 복각이 목각인지 석각인지 그 출처는 어떤 비석 혹은 탁본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송대 제작된 장안본과 역음당본 중, 후자와 일치하는 일본 소장 중 각본은 중국 소재 <역산비> 모본에 대해 두 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일본 중각본의 ‘유’ 자(字)를 통해 서현의 모본에 대한 고염무의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장안본과 두 가지 역음당본을 비교하면서 당대 이후 모본에서는 ‘유’자가 통용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고, 이로써 서현이 진대 <역산비>에서 ‘문’자가 쓴 것을 몰라서 오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중각본이 중국의 역음당본과 동일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음당본 역시 그 원본이 매우 오래된 당 이전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는 중국

知之者, “蘇米齋中老, 斤斤說齋然, -余謁蘇米齋, 以齋然書爲問- 海天理舊夢, 廻首三十年.”

20) 『廣川書跋』卷四, 『嶧山銘』, “陳伯修示余嶧山銘, 字已殘缺, 其可識者僅僅耳. 視其氣質渾重, 全有三代遺象, 顧泰山則似異, 疑古人於書不一其形類也. 嶧山之石唐人已謂棗木刻畫, 不應今更有此. 然求其筆力所至, 非後人摹傳拓臨可得放象, 故知摹本有至數百年者. 夏鄭公嘗得此本, 益可信也.”

소재(所在) <역산비> 모본 일곱 가지 중 가장 오래된 장안본, 역음당본보다 소전체의 전형에 더 가까운 글씨를 보여준다. 일본 소재 <역산비> 중모본은 <역산비> 제 판본의 시대 구분에 관한 중요 기준 자료인 것이다.

3. 일본 석각(石刻) 자료

조선을 거쳐 청으로 전달된 일본의 금석학 자료 중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석각 모본 4종, 그리고 몇 점의 동경(銅鏡)이 있다. 우선 석각 모본은 일본에서 조선에 유입된 후 세 경로를 통해 청에 전달되었다.

조선인이 자료를 입수한 정황은 박현규가 언급한대로 1863-1864년 일본에 파견되었던 계미통신사로 거슬러 올라간다.²¹⁾ 계미통신사는 몇몇 일본 문인들로부터 약간의 일본 금석 자료를 받았다. 우선 사행단은 일본 문인들이 제작한 인장 여러 과를 받았다.

택전동강(澤田東江), 목촌겸가당(木村兼葭堂), 복원승명(福原承明), 중촌삼실(中村三實) 등 일본 문인들은 통신사행단의 일부에게 인장을 선물하고 그 인보를 남겼다. 남옥의 『일관기』(日觀記)에 의하면 계미년 12월 24일 세숙(世肅, 겸가당의 字)과 복상수(福尙修, 복원승명)에게 인장을 부탁했다는 기록이 있고, 갑신년 복원상수가 인장을 새겨보내고 인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같은 해 3월 11일에 동강이 남옥과 성대중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하여 이들에게 건네주었고, 5월 15일에는 중촌삼실이 도장 9과를 주었는데 동강의 것보다 뛰어나다는 기록이 있다.²²⁾ 실제

21) 박현규(2006), 「청조 학자의 일본 다호비 입수 과정과 분석」, 『일본어문학』 제33집 참조.

22) 南玉, 『日觀記』 권9, 5월 11일.

로 오사카에 있는 나카노시마[中之道] 도서관 소장 『동화명공인보』(東華名公印譜)는 일본인이 준 조선인 인보 14매로 이루어져 있다.²³⁾ 또한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아마가사키[尼崎] 시의 교육위원회의 이원식(李元植) 컬렉션’에 성대증을 위해 제작한 인장 6과가 포함되어 있다.²⁴⁾ 택전동강, 목촌겸가당, 복원승명, 중촌삼실이 1764년에 제작한 것이다. 겸가당은 조선 통신사원을 위해 20과(顆)의 인장을 제작하였고, 그중 성대증에게 준 인과 앞면에는 ‘창산성대증집인’(昌山成大中士執印), ‘윤집기증’(允執其中)이 새겨져 있고 측면에는 ‘낭화목공공각’(浪華木孔恭刻)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택전동강이 제작한 인장으로 백문(白文) ‘성대증인’(成大中印)과 주문(朱文) ‘사집’(士執) 인장도 있다. 김정희는 계미통신사일행이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혹은 인보, 고매원에서 제작한 묵, 회화 작품을 노래한 적이 있는데, 그중 “전각에 한 대의 규범이 있으니 정묘하고 고아하구나, 겸가당이여.”라고 읊은 대상이 바로 겸가당이 제작한 인장으로 짐작된다.²⁵⁾ 겸가당은 일본 서사에서 고체파(古體派)라고도 불리는 ‘장기파’(長崎派)에 속한다. 장기파는 중국 문물의 수입에 용이한 장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명대 서관(徐官)의 『고금인사』(古今印史)나 오구연(吾丘衍)의 『학고편』(學古編)을 간행하기도 했다. 고체파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고부용(高芙蓉, 1722-1784)은 동경을 중심으로 유행한 금체파의 과도한 장식을 비판하면서 진한(秦漢)의 서풍을 추구하였다. 그 문하의 한 사람이 겸가당이며, 고부용은 겸가당을 통해 수입한 명대 소선(蘇宣)의 『소씨인략』(蘇氏印略)을 학습 자료로 삼고 명대 감양(甘陽)의 『인정』(印正)을

23) 李元植(1997),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pp. 361-366 참조(仲尾 宏(2011), p. 136 재인용).

24) <2013年高麗美術館特別展 Korean Envoys in Japan, Meeting in Kyoto 조선통신사와 교토, 정성의 교분 : 2013年10月19日-12月23 出品目録> 참조.

25) 『阮堂全集』 권9, 『仿懷人詩體 歷敍舊聞 轉寄和舶 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제 9수, “篆刻有漢法, 精雅蒹葭堂.”

주해하는 등, 명대 복고적인 전각 서풍의 영향을 받았다.²⁶⁾ 김정희는 고학파로서 겸가당의 일본 전각사에서 위상을 정확하게 지적한 셈이다.

사행단은 일본 문인들로부터 인장들 외에도 몇몇 중국과 일본의 금석 자료들을 선사받았다. <다호비>(多胡碑)(711)와 <다하성비>(多賀城碑)(724), 일명 <호비>(壺碑) 두 건인데 <나수국조비>(那須国造碑)와 함께 일본 3대 고비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이다.²⁷⁾ 이들 자료는 청대 고증학자에게 전래되었다.

<다호비>는 일본 군마현(群馬縣) 요시이정(吉井町)에 세워진 비석이다. 정면 비문은 6행(行), 각 행 8자(字)의 해서(楷書)로 쓰여 있다. 이 비문에 의하면, 비석은 711년 태정관(太政官)의 변관(弁官) 명으로 일본 내 상야국(上野国)의 편강군(片岡郡), 녹야군(綠野郡), 감량군(甘良郡)을 병합하고 다시 세 군에서 300호를 분리해내어 새로 다호군(多胡郡)을 설치한 뒤 ‘양’(羊)에게 지배하도록 한 일을 기념하여 설치되었다.²⁸⁾ 비문의 서체는 모가 둥근 해서 풍으로서 북위(北魏)의 서풍 특히 정도소(鄭道昭, 455-516)의 서풍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정도소는 북위의 관료이자 서화가였으며, 왕희지(王羲之)와 함께 ‘남왕북정’(南王北鄭)로 병칭될 만큼 뛰어난 해서 석각 작품을 다수 남겼다. 그 글씨는 힘이 굳건하고 정봉(正鋒)을 주로 사용하며 근골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청대 발견된 <정문공상비>(鄭文公上碑)와 <정문공하비>(鄭文公下碑)(511), <논경

26) 中田勇次郎(1966), 『日本の篆刻』, 二玄社 참조.

27) <那須国造碑>는 栃木縣 大田原市(옛 那須郡 湯津上村)에 조성되어 있는 飛鳥時代の 古碑로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탑신에 8行, 각 행 19字, 총 152字의 석문이 있다. 永昌 元年(689年) 那須国造이자 評督으로 부임한 那須直葦提의 사적을 그 아들이 기념하기 위해 700년에 건립했다. 延宝 4年(1676)에 僧侶·円順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를 보고받은 영주 徳川光圀이 笠石神社를 세우고 비를 보존하게 했다.

28) “弁官符上野国片岡郡綠野郡甘良郡, 并三郡内三百戶郡成, 給羊成多胡郡. 和銅四年, 三月九日甲寅宣.” 비문 내 ‘羊’의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다. 方角을 의미하는지 人名을 가리키는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인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양씨가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는 여전히 명확치 않다.

서시>(論經書詩)의 마애석각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²⁹⁾ 정도소의 글씨는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서체를 뛰어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호비>와 유사하다고 지적되는 것이며, 후술하듯이 청대 정도소의 작품들이 발견되면서 <다호비>도 더욱 주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호비>는 다호군 설치에 관한 일본 역사의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그 서체는 8세기 일본의 서체를 제시하고 아울러 중국 당대 서체의 전파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의미는 1000년이 지난 에도막부시기에 주목되었다.

애초 <다호비>의 가치를 재발견한 이는 고교도재(高橋道齋, 1718-1794)이다.³⁰⁾ 서예가였던 고교도재는 1751년 거주지 근방에서 <다호비>를 발견해 그 서체에 주목했다. 고교도재는 <다호비>의 탁본을 떠서 1754년에 택전동강(1732-1796)에게 보여주었고, 이는 <다호비> 탁본이 조선, 청으로 유통될 계기가 된다. 택전동강은 고교도재와 함께 고이재(高頤齋) 밑에서 함께 수학했으며 역시 서예가이자 전각가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경학에도 정통하였고 『경개집』(傾蓋集), 『서학전』(書學筌), 『서범』(書範) 등의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이후 <다호비>를 설명하는 『상모다호군비첩』(上毛多胡郡碑帖)을 저술하고 택전동강의 스승이자 역시 계미통신사를 맞았던 정상난대(井上蘭台, 1705-1761)와 그 제자인 정상금아(井上金蛾, 1732-1784)로부터 서문을 받았다.³¹⁾ 택전동강은 고교도재로부터 탁본을 받은 해로부터 10년이 지난 1764년에 조선의 통신사행단을 만나게 된다. 『경개집』에 의하면, 계미통신사단이 왔을 때 동강은 막부의 명으로 가치(家治) 장군의 반서인장(返書印章)을 새겼고, 이 공으로 태학두 임봉곡(林鳳谷)과 3월 3일 조선통신사가 교류하

29) 李鏞華 編(2009), 『鄭文公碑』, 金盾出版社.

30) 이름은 克明, 字는 子啓. 통칭 九郎右衛門. 양명학자, 서도가, 俳人. 저작으로는 『弁孟論』, 『滄溟尺牘考』 등이 있다.

31) 仲尾 宏(2011), p. 138.

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남옥의 『일관기』(日觀記)에 의하면 2월 25일 “주굉과 주준이 와서 이야기 하였다. 평린의 호는 동교인데 인장을 정교하게 제작했다. 관백[가치 장군]의 인보를 만들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후 3월 2일에 동교가 <다호비>를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³²⁾

계미통신사행단이 당시 귀국하면서 받은 물품에는 인장 외에도 택전동강과 한천수로부터 받은 몇 가지 석각탑본이 있다. 『경개집』에 의하면 택전동강은 통신사단에게 여러 본의 쌍구본 <다호비> 번각본을 선사했고, 남옥은 이에 고비가 기골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택전동강은 <다호비> 번각본을 고교도재가 제작했다고 소개하였고, 남옥은 고교도재의 시도 높이 평가했다.³³⁾ 택전동강은 <다호비>와 함께 병칭되는 <다하성비> 탁본도 소개해 주었지만, 성대중은 <다하성비>보다 <다호비> 쪽이 자법이 더 기골하다고 하였고 동강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다호비> 탁본을 감상한 조선 통신사행 일원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남옥은 동강이 저술한 『경개집』에서의 대화 내용과 달리 본인이 저술한 『일관기』에서 좀 다른 평을 했다. <예학명>과 서체가 비슷한 것이 예스럽기는 하나 골력이 부족하여 지령이 같다는 것이다.³⁴⁾ 그 주변 문인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성대중은 택전동강이 <다호비>를 중시하고 조선에 전파하는 것을 호사가들의 취향이라고 하고 그 글씨가 너무 험괴해서 스스로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나마 이를 본 이들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³⁵⁾

32) 『日觀記』 권8, 갑신년 2월 25일 “周宏, 周遵來話. 平麟號東郊, 工於印章, 爲關白印寶者.”; 같은 책 권8, 갑신년 3월 2일.

33) 澤田東江, 『傾蓋集』, “東郊云, 上野國九峰山人, 名克明, 頗好古之士. 此石本, 卽所翻刻其家也. 秋月云, 多胡碑得之, 甚奇. 非足下尙奇之癖, 何以得此. 詩亦奇雅, 欲和此韻以上付奇之末……龍淵云, 字法雖古, 終不及多胡之吉屈. 東郊(江)云, 足下實具眼之士.”(仲尾 宏(2011), pp. 141(재인용); 須賀昌五, 『高橋道齋と朝鮮通信使』, 『群馬歴史散歩』 第 90號, 2003(仲尾 宏(2011), pp. 141-142. 재인용).

34) 『日觀記』, 갑신년, 3월 2일.

이덕무는 <다호비>의 기문 내용, 발굴 경위를 언급한 뒤 “문장에 알지 못할 것이 많고 글자는 크기가 어린애 손바닥만 한데, 기고 박락(奇古剝落)하여 <예학명>(瘞鶴銘)이나 안진경의 글씨와 매우 비슷했다. 어떤 것은 마치 어린애가 먹으로 까마귀를 그려 놓은 것 같았다. 서상수는 ‘기이하기는 기이하지만 글자가 글자를 이루지 못했다.’했으며, 김두열(金斗烈)은³⁶⁾ 크게 기이하게 여겼다.”고 전했다.³⁷⁾ 성해응 역시 <다호비>를 보고 제침을 한 바 있는데, 부친 성대중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획이 기이한데 주서(籀書)나 해서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다고 했다. 아울러 획은 질박하지 못하고 무르고 유연하다고 감상평을 남기면서, <다호비>의 건립 연대를 보면 이미 일본 내에 인문이 개벽하고 한참 후인데 어떻게 이런 혼돈스런 글자체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했다.³⁸⁾ 남옥을 비롯한 이들은 <다호비>를 역사적 금석학적 자료로서의

35) 成大中, 『青城集』卷八, 「書多胡碑」, “多胡碑, 余得之日本, 其稱和銅, 迺其元明天皇年號, 其四年 則唐睿宗景雲二年辛亥, 而距今一千一百九十年也. 碑之淪於野土, 不知其幾年, 而平鱗者始得之. 鱗雅善金石圖章, 獲此以爲珍, 好事者亦盛爲稱之.”

36) 李德懋, 『靑莊館全書』 53권, 「耳目口心書」 六에 의하면 김두열은 전서, 주서, 및 행·초서와 인장에 모두 능했다고 한다. (“金藝園斗烈, 字英仲, 一號南村, 又曰褐寬齋. 詩文豪達, 又能傳神, 篆籀行艸與圖書印章, 無不精通. 其篆尤大名於世, 蓋慨慷奇士也.”).

37) 『靑莊館全書』, “日本上毛多胡郡碑文弁官符……日本東都平鱗字景瑞, 寫字官也. 甲戌年, 見此碑, 始表而出之. 其前好事者, 皆未之見也, 遂摹勒, 雜引書籍爲攷證附刻, 蓋封侯食采碑也. 文多不曉, 字大如兒掌, 奇古剝落, 瘞鶴銘魯公書, 太彷彿, 有時如童子塗鴉, 徐汝五以爲奇則奇矣. 字不成聞, 金英仲斗烈, 大奇之也.” 한편 박현규 (2006)의 글에 따르면, 박철상씨가 발굴한 조수삼의 『聯床蘇譜』에서 조수삼은 이덕무가 <다호비>의 늙름한 기상이 <예학명>을 넘는다고 매우 칭찬했다고 전하는데(趙秀三, 『珍珠船櫟存』 권2, 「聯床蘇譜」, “日本國多胡郡有秦時古碑……較諸瘞鶴銘, 凌厲過之, 靑莊道人甚賞之.”) 『청장관전서』의 글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청장관전서』가 이덕무 저작인 만큼 『청장관전서』에서의 평가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8)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冊十六, 「書畫雜識/題多胡碑後」, “多胡碑, 出自日本, 具在先君子集中, 字畫詭異, 然非繙非楷, 似有倣依. 蓋其和銅四年, 卽唐睿宗景雲四年,

가치보다는 당시 조선 문인들이 공유했던 미적 평가기준으로 판단했다.

<다호비> 서체의 역사적 가치를 알아본 이는 통신사단이 아닌 송재도(宋載道, 1727-1793)였다. 송재도는 성대중과 지기였으며 성대중의 아들 성해응을 가르치기도 했다. 송재도는 성해응의 기록에 의하면 문장도 빼어났으며 글씨가 짙고 수려했으며, 이광사가 필명을 떨칠 때 홀로 그 험괴함을 비관할 정도로 뚜렷한 서예관을 가지고 있었다.³⁹⁾ 또한 왕희지의 <성교서>(聖敎序) 진적 탁본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⁴⁰⁾ 그는 중국의 서첩들도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대중은 송재도가 <다호비> 번각본을 보고,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던 진귀한 한예(漢隸)의 고법(古法)이라고 한 없이 감탄했다고 한다.⁴¹⁾ 그는 <다호비>의 금석학적 서예사적 가치를 주목한 가장 빠른 예에 속하지만, 그의 안목이 주변으로 확산된 흔적은 없다.

그리고 <다호비> 모본의 가치는 그 다음 세기 금석학에 탐닉했던 조선과 청의 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된다. 일본 고비 모본이 청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중미 굉(仲尾 宏)은 성대중으로부터 조인영, 김정희를 거쳐 섭지선에 이르는 전달 과정을 제시했다. 성대중이 통신사행시 받은 일본 고비 모본들을 자신의 문집에 서문을 써 준 조인영에게 건넸을 것이고, 조인영은 다시 막역한 지기인 김정희에게 이 탁본을 선사했을 것이고 김

則日本人文之闕，亦久矣，豈有此混沌未分之書乎。且畫亦脆柔，欲樸而未能者也。”

39)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49, 『世好錄/宋載道』, “宋公載道字德文號芝溪, 恩津人. 抱之鳴臯, 其婦家也, 贅居之. 治文章有逸調, 好以筆翰琴棋自娛……詞律必古雅, 不用唐後語, 筆亦濃麗. 圓嶠李匡師以筆名, 世皆趨之, 公獨斥以爲險怪不可法.”

40)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冊十六, 『書畫雜識/再題聖敎序後』, “聖敎序極奇妙, 雖乖右軍筆意, 亦足楷法. 但不得其神韻, 而徒倣體裁, 如沐膠染盆中, 自歸冗俗. 余嘗從芝溪宋公書室, 得見真蹟畫法, 真屋漏痕也. 內蓄精悍, 外拓踈朗, 非元明後所刻. 今聞失之, 不知轉之何家.”

41) 『青城集』 권8, 『書多胡碑』, “多胡碑……余之入日本, 鱗以此見遺, 欲廣其傳. 然余以其字畫之太詭, 藏之巾笥, 未輒示人, 人亦不之好也. 適芝溪宋德文見而奇之曰, 此漢隸古法也. 中國之失其傳久矣, 今乃得之夷耶, 咨嗟撫玩, 久不能已.”

정희는 섭지선에게 건네고, 섭지선은 『일본잔비쌍구본』(日本殘碑雙鉤本)에 수록하게 되었을 것이다.⁴²⁾ 그러나 일본 고비 모본이 청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는 박현규에 의해 제시되었다. 박현규는 보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 조병구(趙秉龜)가 유희해에게 전달하고, 김정희가 섭지선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제시했다.⁴³⁾

그런데 청대 금석학의 영역 확장 속에서 일본 금석학 자료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흔적으로서, 옹수곤(翁樹崑, 1786-1815)이 1813년 10월 25일 조선의 흥현주에게 보낸 편지글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옹수곤은 일본 금석학 자료에 대한 정보를 의외로 『고매원묵보』(古梅苑墨譜)와 『고매원묵보후편』(古梅苑墨譜後編)을 통해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종의 서적은 일본 전통의 먹 제조 방법, 명대 방우로(方于魯) 편 『방씨묵보』(方氏墨譜)와 정군방(程君房) 편 『정씨묵원』(程氏墨苑)을 중심으로 한 먹 제조 방법, 그리고 한·중·일 먹의 여러 문양을 수록한 도록이다. 『고매원묵보』 4권은 송정원태(松井元泰, 1689-1743)가 1742년에 간행하고 『고매원묵보후편』 5권은 그 아들인 송정원휘(松井元彙, 1716-1782)가 1773년에 간행했다.⁴⁴⁾ 송정가문은 무라야마 시대 말기부터 먹을 제조했는데 저술 즈음해 당지(唐紙)가 수입되면서 중국 종이에 맞는 중국식 먹 제조법을 수입하여 제조하고 아울러 일본의 먹 재료를 청에 보내 제조하게 하는 청일공동 제작도 시도했다. 『고매원묵보』와 『고매원묵보후편』은 일본식 화방묵(和方墨)과 중국식 당방묵(唐方墨)을 소개하고 여러 묵의 문양들을 수록했는데, 전편에만도 50여 종의 묵양이 있다. 이 두 종의

42) 仲尾 宏(2011), pp. 143-144. 仲尾 宏이 말하는 섭지선의 『일본잔비쌍구본』은 섭지선의 『安館金石文字七種』(도광 19년)에 수록되어 있다. 『安館金石文字七種』의 목록 중에 <多胡碑>가 있다. 이 저술은 趙之謙의 『補寶宇訪碑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당시 섭지선의 것은 雙鉤本이었고 후에, 楊守敬이 조지겸에게 重新複刻을 주었다.

43) 박현규(2006), 위 논문.

44) 『고매원묵보』의 여러 판본, 내용에 대해서는 林麗江(2010), 「日本古梅園相關墨書之研究—十八世紀中日藝術文化交流之一端」, 『漢學研究』 第廿八卷第二期 참조.

서적은 먹 제작에서 중 일 합작을 기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중일 삼국의 먹 문양을 싣고, 또한 수많은 삼국 문인들의 제발문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옹수곤은 먹 제조방법이나 모양 외에, 『고매원묵보』 마지막 권인 정권(貞卷)의 마지막 면에 소개된 간행물 그리고 묵보에 묵 문양으로 제시된 일본 석각물을 주목했다. 옹수곤은 1814년 홍현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이미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문헌 혹은 유물을 적지 않게 소장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다만 아쉬운 것이 금석과 문예관련 자료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⁴⁵⁾ 그는 어디선가 『고매원묵보』를 얻어보고 『명묵신영』(名墨新詠) 2책, 『고매원묵담』(古梅園墨談) 1책, 『묵유경유』(墨園瓊鬪) 1책, 『동암시고』(東庵詩稿) 1책, 『대묵홍묵집』(大墨鴻墨集) 1책, 『고매원묵보』 4책, 『むかしの水』 1책과 더불어 <불족석비>(佛足石碑), <강도비>(江島碑), <호비>, 기타 일본에서 생산된 금석, 문예 관련자료, 문방품, 일본에서 판각한 서적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⁴⁶⁾ 실제로 『고매원묵보』를 살펴보면 정권(貞卷) 마지막 면에 『남경고매원편록서목유지헌재행』(南京古梅園編錄書目柳枝軒梓行) 즉, 고매원에서 편저하고, 서림(書林) 유지헌에서 간행한 7종의 책 목록으로 위의 서적명들이 기록되어 있다.⁴⁷⁾ 송정원태는 1712년에는 『고매원명묵신영』(古梅園名墨新詠)을 간행했고, 1713년경에는 『고매원묵담』을, 1716년에는 『むかしの水』를, 1720년에는 『동암시고』를, 1734년에 『대묵홍묵집』을 간행했다.⁴⁸⁾ 또한 『고매원묵보후편』 천권(天卷)에는 묵의 문양으로서 <불족석비>가 그려져 있고, 『후편』 지권(地卷)에는 <강도비>가 그리고 리권(利卷)에는 <호비>가 그려져 있다.⁴⁹⁾ 물론 묵문양으로 제시된

45) 藤塚鄰(2008), p. 317.

46) 藤塚鄰(2008), pp. 194-195, 314-317.

47) 松井元泰 編, 『古梅苑墨譜』 貞, 서울대학교 所藏本.

48) 『墨園瓊鬪』의 간행년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석각의 모습은 원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옹수곤은 홍현주에게 부탁했을 것인데, 과연 홍현주가 이들 『고매원묵보』를 비롯한 이들 자료를 구해주었는지를 알려 주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 옹방강에게서는 일본 비석 모본을 보거나 소유했던 기록들이 눈에 띈다. 섭지선은 옹방강이 <다호비> 쌍구본(雙鉤本)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했다.

오른쪽 일본의 잔비는 모두 80자이다. 비문에 따르면 화동은 원명천황의 건립 연호이며, 4년은 당 예종 경운 2년에 해당하니 신해년이다……. 일본인 평린이 땅속에서 찾았다고 전하는데, 그 탁본이 조선으로 흘러들어와 성씨 가문이 소장했다. 20년 전 옹방강 선생이 쌍구본을 보내주셨다. 우연히 조사하다 찾아내어 상세하게 고증하고 아울러 중모하여 묵연을 넓히고자 한다.⁵⁰⁾

이 글은 섭지선이 1839년 편찬한 『일본잔비쌍구본』의 발문이다. 섭지선은 옹방강으로부터 일본비 쌍구본을 20년 전 얻었다고 했으니, 이는 1818년 옹방강이 사망하기 직전으로 추정된다. 이후 청말 저명한 금석학자였던 섭창치(葉昌熾)는 옹방강이 실은 잔비(殘碑)가 아닌 <다하성비>를 잔비라고 언급했다고 기록했고,⁵¹⁾ 현대 연구자 이풍무(李豊楙)는 옹방강이 일본 잔비를 포함한 『금석도상』(金石圖像) 4종4권을 저술했다고 제시한 바 있다.⁵²⁾ 옹수곤이 홍현주에게 편지를 쓴 1813년에는 아마도

49) 松井元暈 編, 『古梅苑墨譜後編』天·地·利, 서울대학교 所藏本.

50) 葉志詒, 『日本殘碑雙鉤本』, “右日本殘碑凡八十字, 按碑文和銅爲元明天皇建號, 四年當唐睿宗景雲二年, 歲紀辛亥也……. 相傳日本人平麟得於土中, 拓本流入朝鮮, 爲成氏所藏. 廿年前 翁潭溪師以雙鉤本見贈. 偶爾檢得, 因詳爲攷証, 并重摹以廣墨緣.”

51) 葉昌熾, 『語石』卷二, “覃溪, 以多賀郡碑與瘞鶴銘, 並重稱爲日本殘碑, 實未殘也.”

52) 李豊楙는 이 저술이 續修四庫全書 提要 著錄이며, 史部 彙編類에 속한다고 했는데 (『翁方綱著述考』, 『書目季刊』, p. 44.), 사고전서 사부에는 휘편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부 전체에도 이 저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아버지인 옹방강 역시 자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호비> 쌍구본은 1813년부터 옹방강이 사망한 1818년 이전에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옹방강은 <다호비>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얻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옹수곤에게 부탁받은 흥현주로부터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섭지선은 위 인용문에서 옹방강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읽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1834년에 김정희에게 같은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섭지선은 김정희에게 1834년 편지를 보내면서 이전에 이 유하(李遊荷: 趙遊荷의 오기로 추정)가 쌍구본 <다호비>를 유희해에게 보내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내주니 매우 흡족하다고 적었다.⁵³⁾ 이 서신으로부터 섭지선이 김정희로부터 <다호비> 모본 책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유희해가 조유하 즉 조병구(趙秉龜, 1801-1845)로부터 <다호비> 쌍구본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병구 관련 자료들에서 일본의 쌍구본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해동금석원』의 제사, 그리고 주변의 기록들로부터 그 전달 경위를 짐작할 수 있다. 박현규의 조사에 의하면 『해동금석원』에는 조병구로부터 전달받은 4종의 일본 금석문 모본, <부일본국다호비>(附日本國多胡碑), <부일본국다하성호석비>(附日本國多賀城壺石碑), <부일본국불족석비>(附日本國佛足石碑), <부일본국강도영적건사지전액>(附大日本國江島靈跡建寺之篆額)의 항목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부일본국다호비>에는 조병구의 발문이 있다.⁵⁴⁾ 그 발문은 다음과 같다.

“다호는 왜국의 군명이다. 화동은 그 나라 원명천황의 연호이며, 그[화동년간] 4년은 당 예종 경운 2년이니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53) “多胡碑 曾見李遊荷以雙鉤本寄劉燕庭，今得此冊，甚愜願也。”

54) 박현규(2001), 「상해도서관장 정 유희해의 정고본 『해동금석원』」, pp. 297-298. 박현규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유통되는 『해동금석원』은 여러 판본 중 유승간인본이며 이 판본에는 일본 금석자료가 삭제되어 있다. 일본 금석자료가 수록된 판본은 정본과 포강인본이다.

이 차이난다. 건륭 계미년[1763] 통신사를 수행한 이가 얻었다. 전하는 말로는 그 비가 처음 일본 땅에 묻혀있었는데, 평린이라는 자가 평소에 금석을 좋아하여 찾아가 얻었다고 한다. 계미년은 지금부터 또 70년 전이다. 우리 집안의 귀중물이며 부분도 없다. 모사했는데 본래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잃었다. 정말 애석해 할만하다. 조선 조병구 경보 발.”⁵⁵⁾

조병구는 <다호비> 본문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다호, 화동의 의미를 풀이하고, <다호비>는 애초 일본인 평린이 발견했는데, 계미통신사가 그 모본을 전달받았으며,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임을 밝혔다. 박현규는 조병구가 계미통신사단 중 누구로부터 얻은 <다호비> 모본을 가보로 보관하다가 이 소장본으로 저본으로 비석에 세긴 글자 테두리를 모사한 쌍구본을 제작해 1830년 연경에서 유희해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⁵⁶⁾

조병구는 조인영의 조카이자 계미통신사의 정사였던 조엄의 증손으로서 1829년 연행길에 올랐다. 유희해는 『해동금석원』 제사에서 자신이 금석학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력한 인물들로 조인영과 더불어 조병구를 언급했다.⁵⁷⁾ 유희해는 이 글에서 조병구가 어떤 금석 자료를 주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자료의 정체는 위 청의 문인 섭지선이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 편지글과 일치하는 내용이 청대 섭창치의 금석학 저술인 『어석』(語石)에 등장한다. 섭창치는 『해동금석원』 부록의 일본석각 4통을 조병구가 청대 문인들에게 전달했다고 기

55) “多胡, 倭郡名. 和銅 乃其國元明天皇年號, 其四年, 卽唐睿宗景雲二年, 去今爲一千二百餘年也. 乾隆癸未, 信使從行者得之, 來言碑始沈淪其國, 有平鱗者雅好金石, 搜訪得之. 而癸未今又七十年, 本家寶藏, 亦無副本. 撫出苦多失真, 良可惜也. 朝鮮趙秉龜景寶跋.”(박현규(2011), p. 297 인용.)

56) 박현규(2011), p. 297.

57) 劉喜海, 『海東金石苑題辭』, “雲石小阮名秉龜, 字景寶, 亦有金石之好, 道光庚寅春日, 充使來都, 卽以金石爲贄, 修舊好焉.”

록했다. 다만 섭창치는 조병구가 일본사행을 통해 얻었다고 하는데,⁵⁸⁾ 조병구는 통신사단에 참여한 적은 없다. 요컨대 섭지선은 조병구가 유희해에게 건네준 자료를 보고난 후 자신은 김정희를 통해 그 모본을 전달 받은 것이다.

그 외 <다하성비>는 <다호비>보다 반세기 후 제작된 석비이다. <다하성비>는 724년 고대 육오국(陸奧國)의 중심지였던 다하성(多賀城)시(市) 북서부 정청적지(政廳跡地)에 다하성 사람 대야동인(大野東人)이 세웠고, 이후 762년에 그 비문이 새겨졌다고 한다. 앞서 본대로 남옥은 그 서체가 <다호비>에 비해 서체의 아름다움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바 있다. 유희해가 <다하성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다호비>와 함께 조병구가 유희해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해동금석원』에 수록된 4종의 모본 중 <다호비>와 <다하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문 역시, 일본에서 해외로 유출된 경위를 설명해 줄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병구를 거쳐 청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본의 고비 탁본들은 계미 통신사 그리고 이후의 조선 금석학 연구자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달되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직접적인 공식외교가 중단되면서 일본의 문물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선의 통신사와 연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본 금석문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만 계미 통신사 일행이 활동하던 시기에 조선 내에서 금석학이 크게 성행하지 않고 또 일본 문화를 경시하는 풍조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본의 금석문 자료 역시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순탄치 않은 지적 유통과정을 거쳐 조선에 유입된 지 반세기를 훌쩍 넘겨 늦게 청에 건넸다. 결국 19세기 전반 청으로 일본의 금석자료가 전달되어 유희해의 『해

58) 葉昌熾, 『語石』卷二, “燕翁海東金石苑 自陳光大二年 新羅真興王 巡狩碑 至明彰聖寺 真覺國師碑 共八十通 原稿八卷……東武錄麗碑畢. 附錄日本石刻四通, 多賀郡一碑, 有朝鮮趙秉龜跋, 尙是秉龜奉使扶桑, 惟攜至中土者其難得可知. 覃溪以多賀郡碑與瘞鶴銘並重稱爲日本殘碑, 未殘也.”

동금석원』에 4종의 일본 석각 모각본이 실리고, 섭지선의 『안관금석문 자칠종』(安館金石文字七種)에는 <다호비> 쌍구본이 수록된다. 뿐 아니라 특히 <다호비>는 그 서체가 남북조(南北朝)의 것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반존(潘存)과 양수경(楊守敬)이 편찬한 해서 이론서 『해법삭원』(楷法溯源)에 그 39자(字)가 초기 해서로서 수록되기도 했다.⁵⁹⁾ 일본의 석각자료들은 아직 일본 석각 자료만을 위한 전문서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편저들의 일부로 수록되었지만, 이후 일본 금석학 연구의 포문을 열었다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4. 일본 금문(金文) 자료

일본 금문 자료로서 조선 문인을 통해 청대 문인들이 입수한 자료 중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동경 3종이다. 김정희는 청대 문인에게 세 가지 동경을 전달했다. 첫 번째 동경에 관해 김정희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인견화천이란 글자를
전달하여 「금색」에 전하였다네.
-내가 일찍이 일본에서 만든 거울을 중국의 여러 명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풍운봉이 수집하여 [『금석색』 중] 「금색」 고각(古刻)에 넣었음 -
소미재라 그 안의 한 늙은이는
조곤조곤 주연에 대해 말해주었네.
-내가 소미재를 뵈고 주연[이 宋 太宗에게 바친] 책에 대해 질문하였음-
바닷가 하늘에서 옛 꿈을 거둬 찾으니

59) 杉村邦彦(2008), 『多胡碑の朝鮮への流轉に關する新資料』, 『書學書道史研究』 18.

고개를 돌려보매 어언 삼십 년.(제10수)⁶⁰⁾

앞의 시는 「회인시체를 방하여 이전에 들을 것을 서술하여 일본 배에 부치니, 오사카 여러 명사들 중 이해하여 줄 이가 당연히 있으리라」의 제 10수이다. 김정희가 1810-1811년 연행을 30년 전이라고 하고 스스로 바닷가에 있다고 읊는 것으로 보아, 이 시를 지은 시기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적거하기 시작한 55세 경 즉, 1841년 직후로 짐작된다. 김정희는 위의 시에서 읊은 대로 ‘인견화천’(人見和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일본 거울을 여러 중국 문인들에게 주었다고 했다. 『금석색』(金石索)(1822) 권6 마지막 ‘일본국경’(日本國境)1-9는 섭지선의 탁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섭지선도 김정희가 일본경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준 문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수록된 아홉 가지 일본 경 중 ‘일본경’(日本鏡) 6의 제목아래 있는 경의 관자(款字)는 ‘인견화천수중차’(人見和泉守重次)이다. 그 동경에 새겨진 글자는 ‘인견화천수중차’인데 ‘인견’은 거울 제작자의 성, 화천수는 관직명, 중차는 이름이다. 수선화 그림이 있다. 이 거울이 풍운봉(馮雲鵬)의 『금석색』에 수록되었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다.⁶¹⁾ 『금석색』, 「일본경」 6에 “경의 그림은 수선화와 산차이다. 의심되는 글자는 이해할 수 없다. 자법과 점획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글자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경에 새겨진 글자 중 ‘인견’이 위아래로 너무 붙어 있어 한 글자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다른 동경에 대한 글에서도 동경에 새겨진 글자를 곤란해 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경’ 4의 명(銘)은 ‘진전살마수’(津田薩摩守)인데 풍안해는 ‘마’(摩) 자(字)를 ‘마’(麻) 아래 ‘오’(午) 혹은

60) 『阮堂全集』 제9권, 「仿懷人詩體 歷敘舊聞 轉寄和舶 大板浪華間諸名勝 當有知之者」, (제 8수), “人見和泉字, 賴以金索傳, -余嘗以和製鏡, 分贈中國諸名士, 馮晏海並收刻於金索古刻中-蘇米齋中老, 斤斤說齋然 -余謁蘇米齋, 以齋然書爲問- 海天理舊夢, 廻首三十年.”

61) 정혜린(2011), 「橘山 李裕元의 서예사관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우’(牛)자가 세로로 병기되어있다고 오인하여 없는 글자라고 기록했다.⁶²⁾

둘째, 김정희는 오승량이 회갑을 맞은 1826년에 ‘복수경’(福壽鏡)을 보냈다.⁶³⁾

셋째, 김정희는 옹방강에게도 일본 동경을 한 점 선사했다. 옹방강은 『일본유금경가』(日本鑲金鏡歌)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동쪽 바다 끝에 있는 섬, 동쪽의 또 동쪽에서 유금을 선별하고 양
동을 정련했네.

둥글게 주조하여 보배의 혼을 모았구나. 계림의 진사가 시를 보
내었는데

상자를 여니 그 빛이 방안을 비추니 세 가지 금속을 섞어 제련한
동경과 다르며⁶⁴⁾

배면 문양에는 진기한 보물을 아로새기니 서왕모와 동왕공도 놀
래키는구나.

주변에는 ‘식전길정’(植田吉正) 글자를 제하고 중앙에 두 전서 글
자는 둥글고 풍만하다.

자세히 보아도 제자는 꽤 성글고 마르니 이 전서의 기세는 잘못
되고 공교롭지 않구나.⁶⁵⁾

62) 日本鏡四, “鏡畫竹梅, 疑題津田薩麻/午守五字, 麻下午無此字. 或是麻下午. 廣韻云, 摩牛重千斤, 出巴中. 疑津田者地名, 薩麻/午守者官名也.”

63) 藤塚鄰(2008), pp. 453-454.

64) ‘幽涑’의 ‘幽’는 ‘明’과 상대되는 의로서 ‘煉’을 의미하고, ‘涑’ 역시 ‘煉’의 의미이다. <漢中平六年鏡銘>의 “幽涑三羊”, <建安十年鏡銘>의 “幽涑宮商”, <建安廿二年神農鏡銘>의 “幽涑三章” 등이 그 예이다. 동경은 그 신비로운 의미 때문에 제작할 때 신비로운 의식이 표면에 더해져 “幽涑”이라고 한다. “三商”은 駒井氏에 의하면 “三金”의 의미이다. 『白虎通義』, 『五行』, “金在西方”, “其位西方, 其色白, 其音商”이 그 예에 해당한다. 三金은 경을 주조할 때 쓰는 銅, 鉛, 錫을 가리킨다고 한다.

65) 翁方綱, 『復初齋詩集』 卷六十五, 『日本鑲金鏡歌』, “東洋極島東更東, 鑲金上選精洋銅, 鑄出團團聚寶魄, 雞林進士來詩筒, 匣開光可一室照, 不與幽涑三商同, 背文四出鏤珍異, 託西王母東王公, 邊題植田吉正字, 中央二篆圓且豐, 諦觀題字頗踈瘦, 奈此

이 동경의 가장자리에 식전길정(植田吉正)이라는 제자(題字)가 있고 중앙에 전서로 쓴 두 글자가 있다고 했다. 이 동경은 풍운봉의 『금석색』(金石索), 『금색』(金索)의 ‘일본경’ 5의 제목아래 있는 경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가장자리에 ‘식전산성수길정’(植田山城守吉正)이라는 7글자의 관지가 있는데 관직자의 지명과 인명이며, 거울 중앙에는 전서로 ‘복수’(福壽)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울 그림으로 거북, 학, 알 수 없는 보물들이 있다고 했다.⁶⁶⁾ 웅방강의 시와 비교해보면 웅방강의 시에서 ‘식전길정’(植田吉正)은 시의 운율을 위해 ‘식전산성수길정’을 줄인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 외 제자, 진기한 보물, 중앙의 전서에 대한 묘사는 풍운봉의 『금석색/금색』의 ‘일본경’ 5와 일치한다. 등총린은 위의 두 번째 동경이 풍운봉의 『금석색/금색』의 ‘일본경’ 5와 일치한다고 추정했는데,⁶⁷⁾ 그 근거는 매우 미약하지만 그 추측대로라면 김정희에 청의 문인들에게 선사한 두 번째, 세 번째 동경은 서로 같은 것일 가능성도 있다.

5. 맺음말

금석문은 주지하다시피 그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 외에 문자학, 그리고 서예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석학은 송대 구양수(歐陽脩)의 『집고록발미』(集古錄跋尾)로부터 학문적 규모를 띄기 시작했는데 청대 고증학이 대두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웅방강과 완원(阮元) 외 섭지선, 풍운봉, 왕창(王昶) 등이 그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이들은 중국 각지의 금석 자료를 수집하고 그 학문적 의의를 다각도

篆勢訛非工.”

66) 馮雲鵬·馮雲鶴 編, 『金石索』, 『金索 六/日本竟 五』, “鏡畫龜鶴及雜寶, 有不可盡識者, 中央篆書福壽二字, 款題植田山城守吉正七字, 乃款守者地名人名也.”

67) 藤塚鄰(2008), p. 454.

로 제시하는가 하면, 해외에 눈을 돌려 조선의 금석 자료 역시 힘써 수집하였다. 해외의 금석자료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단순히 외국 문화 정보 수집이라는 차원 외에 중화문화권의 자료 수집 그리고 중국 내 자료 연구를 보완하는 의미도 존재한다. 청과 조선의 문인들은 19세기 들어 자국의 금석 자료들을 상호 교환했는데, 조선 문인들이 연행할 때 금석 자료는 필수적인 선물 품목으로 간주될 정도였으며 한국의 금석문에 대한 여러 저술이 잇달아 간행되었다.⁶⁸⁾ 조선의 문인들 역시 김정희를 필두로 중국 금석학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대량 입수했다. 완원의 ‘남첩북비론’을 비롯해 옹방강의 제 금석학 저술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한 『금석색』 등을 입수한 조선 문인들의 기록은 다수 남아있다. 그런데 일본의 금석 자료는 조선과 청에 유통되기가 쉽지 않았다. 일본과 청의 외교문제에 더해 조선이 일본 문화를 알아보는 경향도 한 몫을 했다. 청의 학자들은 상선을 통해 일본에 존재하는 옛 중국 문헌들을 대거 수입하고 또 일본 학자들 역시 상인들을 통해 청대 저술들을 대량 수입했지만, 금석 자료의 경우는 옹수곤이 김정희에게 언급한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해외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옹수곤도 일본 금석 자료를, 일본에서 출판된 금석학 서적이 아니라 목보에 수록된 목 문양으로서 접했다고 짐작된다. 결국 금석 자료는 문인 개인에 의해 유통되었고, 경학 자료의 경우와 달리 청과 에도 막부 양쪽에 외교사절을 주고받던 조선의 문인들이 그 매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세기 통신사들이 일본으로부터 입수한지 근 70년 동안 조선에 잠자고 있던 이들 자료들은 청의 문인들의 요청에 의해 청으로 전달되었다.

일본의 자료 중 <다호비> 등 4종의 석문 모본, 그리고 일본 동경 자료들은 청대 조선 금석학 저술의 부록이나 중국 금석학 자료의 일부로 단편적으로나마 수록되기 시작했다. 일본 석문 자료들이 아직 독립적인

68) 정혜린(2013), 「이상적이 교유한 청대 문인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pp. 274-277 참조.

저술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 금석학 연구가 이들 자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일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수·당대 제작된 <역산비> 모본은 애초 중국에서조차 연구 자료가 희귀했던 중국의 진대 금석 자료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주었다. 일본에서 건너온 <역산비> 모본은 중국에 있던 가장 오래된 송대 모본의 기원이 당 이전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당을 전후로 한 문자의 변화에 관해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산비> 모본은 서체의 측면에서도 송대 모본들보다 전서적인 특징을 더 잘 보존하는 귀중본이었다.

참고문헌

【자 료】

- 金正喜(2005), 『阮堂全集』天·地·人, 과천문화원.
- 南玉, 『日觀記』(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2006),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
- 成大中, 『青城集』(韓國文集叢刊 vol.248, 民族文化推進黨).
- 成海應, 『研經齋全集』(韓國文集叢刊 vol. 273-279, 民族文化推進黨).
- 元重擧, 『乘槎錄』(원중거 지음, 이혜순 감수, 김경숙 옮김(2006), 『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사).
-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vol. 257-259, 民族文化推進黨, 2002.
- 董迪, 『廣川書跋』(中國基本古籍庫 전자판).
- 楊士奇, 『東裏續集』(中國基本古籍庫 전자판).
- 葉昌熾, 『語石』(中國基本古籍庫 전자판).
- 曹楙堅, 『曇雲閣集』(中國基本古籍庫 전자판).
- 翁方綱, 『復初齋詩集』(中國基本古籍庫 전자판).
- _____, 『復初齋文集』(中國基本古籍庫 전자판).
- 馮雲鵬·馮雲鳩 編, 『金石索』, 臺灣常務印書館, 臺北, 民國57年.
- 松井元泰, 『古梅苑墨譜』, 書林 柳枝軒, 1742(서울대학교 所藏本).
- _____, 『古梅苑墨譜後編』, 書林 柳枝軒, 1773(서울대학교 所藏本).
- 澤田東江, 『傾蓋集』.

【논 저】

- 藤塚鄰 著,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역(2008), 『史史 金正喜 研究』, 과천문화원.
- 박현규(2006), 「청조 학자의 일본 다호비 입수 과정과 분석」, 『일본어문학』 제 33집.
- _____(2001), 「上海圖書館藏 淸 劉喜海의 定藁本 『海東金石苑』」, 『서지학연구』 제20집.
- 정혜린(2013), 「이상적이 교유한 청대 문인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史林』 제45호.

- _____(2013), 『金正禧의 일본 古學 수용 연구』, 『한국실학연구』 26.
- _____(2011), 『橘山 李裕元の 서예사관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3집.
- 中田勇次郎(1966), 『日本の篆刻』, 二玄社.
- 林麗江(2010), 『日本古梅園相關墨書之研究—十八世紀中日藝術文化交流之一端』, 『漢學研究』 第廿八卷第二期.
- 杉村邦彦(2008), 『多胡碑の朝鮮への流轉に關する新資料』, 『書学書道史研究』 18.
- 松浦章(2009), 『江戸時代唐船が中国へ持ち帰った日本書籍—安徽鮑氏『知不足齋叢書』所収の日本刻書』, 『アジア文化交渉研究』 第2号.
- 仲尾 宏(2011), 『篆刻家・澤田東江と『多胡碑』の朝鮮・中國への傳播』,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원고 접수일: 2014년 6월 27일

심사 완료일: 2014년 7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4년 7월 31일

ABSTRACT

The Epigraphic Materials Transmitted to Qing China by Korean Scholars and their Academic Value

Jung, He-rin*

Epigraphic materials represent one of the last categories of cultural exchange that took place between the scholars of China, Korea and Japan before the 20th century. Qing scholars tried to gather and organize overseas academic documents, in addition to domestic documents. They obtained Korean epigraphic data from the Korean envoys and the Japanese data through the help of Joseon scholars, since Joseon had sent envoys to both countries. The epigraphic materials transmitted from Japan to Qing through Korean scholars comprised three kinds: ancient Chinese epitaphic data, ancient brass-rubbings of four Japanese stone works, and some Japanese bronze mirrors. The first consisted of copies of Yishanbei (嶧山碑) supposedly made before Tang which allowed scholars to confirm that the other extant copy of the same original stone, which existed in Qing China at the time, had also been made before the Tang Dynasty. The brass-rubbings of four Japanese stone inscriptions, including Tagobi (多胡碑) and Tagazonobi (多賀城碑), were delivered to Ye Zhi-Shen (葉志詵)

* Institute of Humanities, Sungkyunkwan University

and Liu Xi Hai (劉喜海) respectively by Kim Jeong Hee (金正喜) and Jo Byong-Gu (趙秉龜) - they were included as supplements in Hadongkeumsukwon (海東金石苑), which was a collection of Korean brass-rubbings, in a dictionary, and in some Chinese books. The bronze mirrors were sent to Ye Zhi-Shen, Weng Fang-gang (翁方綱) and others and were included in Jinshisu (金石索).

